

#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15:00 ~ 17:00]

모집단위	학부·과	수험번호	성명
------	------	------	----

## 【 수험생 유의사항 】

1. 답안 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답안 작성 시 필기구는 흑색 펜, 샤프 또는 연필을 사용할 것. (청색, 적색 펜 등 사용 불가)  
다만, 수험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할 것.
4.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 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불일치 시 0점 처리)
5.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6. 답안 수정은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원고지 교정부호를 사용하여야 함.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음)
7. 각 문제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감점 처리함.



## □ 제 시 문 □

[가] 구성원들 사이에 행위의 의미와 결과가 공유되고, 공유된 의미와 결과가 상징의 도움으로 이념과 욕구의 대상으로 변환되면서 하나의 행위 공동체가 생겨나고 규제된다. 물론 개개인의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행동들의 집합체가 인간성을 띤 행위 공동체로 이행하는 것은 단번에 발생하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우리는 처음부터 행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들 간의 상호 연합 현상과 관련된, 끊임없는 교육과 학습에 의해 공동체적 전통, 전망, 이해관계로 인도되는 것이다.

인간성을 배우는 것은 개개인이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데 효과적인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구성원 각자는 자신의 신념, 욕망, 행동 방식 등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인간적인 자질과 가치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한다. 물론 이러한 변환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인간 본성에서 가장 완고한 요소인 ‘옛 아담(old Adam)’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옛 아담’은 상호주관적 의사소통과 계몽이라는 방식 대신에 오로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통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산물인 지식과 기술적 방편들이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욕구와 충동에 의해서만 지배될 때, 더 미묘하게 퍼지면서 효과적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자연적’ 경제 학설은 상업적 교환이 개인들의 상호 의존을 불러와 그들 사이에 자동적으로 조화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루소(Rousseau)는 이미 이전에 적절한 답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기적인 개인들 간의 상호 의존이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오직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도구로 이용하여 종속 상태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법으로서 개인들이 상호 의존 상황에서 벗어나 고립에 기초한 독립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제시했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수용할 만한 해결책도 아니다. 하지만 해법이 절망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절박하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러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법도 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태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공동체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교육되고 학습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옛 아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다음과 같이 주어질 것이다. 즉,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의존적 활동의 결과들을 진정으로 공유하는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공동의 관심사가 그들에게 욕망과 노력을 불러일으켜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나] 누구나 한 번쯤 학교에서 일렬로 줄을 서서 가슴 졸이며 예방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부모 세대에서는 ‘불 주사’로 기억되기도 할 것이다. 겨울에는 독감 예방 주사, 여름에는 일본 뇌염 주사, 그 밖에도 결핵, 홍역, 간염 등 수많은 전염병에 대해 우리는 예방 접종으로 미리 대비해 왔다. 이러한 성격의 예방 접종은 정부의 지원으로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그런데 ‘누구나’, 그리고 ‘꼭 맞아야’ 하는 예방 접종이라면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모두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예방 접종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대로 둘 경우 예방 접종에 대한 과소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 접종 시장에서 결정되는 예방 접종

가격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아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 결과,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예방 접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둘째,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외부 효과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로운 외부 효과를 적극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고 예방 접종을 받을 유인이 떨어진다. 즉, 정부가 나서서 예방 접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방 접종이 이로운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 조곤 나쁘건 사투리란 것이 곳곳마다 댕그렇게 남아서 그 지방 사람들의 혀끝에서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투리를 고대로 납실거려야 비로소 내 잔에다 내 술을 부어서 마신 듯한 감을 주니 사투리라고 새삼스러이 떼어 버릴 것이 아니외다. 이리하여 우리는 평안도 분들의 성난 것은 ‘쌍’하는 한마디에서 짐작하게 되고, ‘할락한다’하는 목소리에서는 경상도 친고(親故)들의 정다운 맛을 이룰 수가 업는 것이요, 전라도의 면목은 ‘히보라면 히보라구’하는 말구에서 생각할 수가 잇는 것이요, ‘왓소꾸마’의 말마디에서 함경도의 모양을 기억케 되는 것이니 이것을 본다 하면 저 표준어 사용처럼 무미한 것은 업는 일이외다.

본래가 언어의 생명은 감정 고대로의 여실한 표현에 잇서 그 말을 쓰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절실한 감을 내일 수가 업는 것이라 하면 혀끝에서 구미를 돌출 말을 내여 버리고 새로 탄말을 대용할 필요는 업는 일이외다. 그것은 어색도 어색이려니와 구태여 찻다 남긴 남의 고기를 다시 씹어야 할 필요가 무엇입닛가.

더구나 언어란 언제나 가튼 것이 아니요, 끊지 아니하고 외래어니 신어니 유행어니 하면서 변화하여 신구의 구별이 생기고 발음이 나날이 달라지는 판이니 어느 것을 붙들고서 이것은 표준어외다 하면서 그 변치 않을 것을 보증할 수가 잇습닛가.

언어의 발음처럼 밋기 어려운 것은 업습니다. ‘天堂’ 가튼 것을 보면 자전에는 ‘턴당’이라고 분명히 발음을 가르쳐 주었건만, 목하 사용되는 발음은 이와 달라서 서울서는 ‘천당’, 평안도에서는 ‘턴당’하고 발음을 하여 버리니 우리는 자전의 그것을 표준 삼을 것입닛가, 서울의 그것을 본받을 것입닛가, 그러치 아니하다면 평안도의 중간치기 발음을 믿을 것입닛가. 생각할수록 대단이 딱한 일이외다.

평안도는 식골이요 서울은 수도외다. 이리하여 우리는 평안도를 버리고 서울의 것을 표준어라고 하면 ‘천당’이라 발음을 하거니와 식골 사투리가 엇지엇지하여 표준어 되는 예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의 흥미는 표준어란 것이 본래부터 잇는 것이 아니요, 한때의 편의에 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깎혀집니다. 저 한촌 벽지의 고적한 사투리로보게 더 존재 가치가 업든 말이 교통의 편의로 인하여 문화의 중앙인 서울로 굴러왔다가 그만 신행 서울말로 움직일 수 업는 존재를 뚜렷이 하는 것이 잇스니, 저 ‘멍텅구리’니 ‘꼴렁꼴렁’이니 하는 것들이 모도다 그것이외다.

우리가 사투리라고 푸대접하든 말이 이리 굴고 저리 굴다가 어느 때 표준어가 될는지 알 수 업는 일인즉 표준어라고 정해 노할 것이 업시, 어느 정도까지 알려어진 말이면 아모리 그것이 사투리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조할 줄 압니다. 발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어딕’을 ‘어디’로 고쳐 놓코서 이것이 표준이요 하는 것은 아모리 보아도 공평을 잃은 일이외다. 언어는 날마다 변화하면서

우리들의 사상과 감정을 고대로 대변해 주랴고 하는 것을 무슨 필요로 표준어니 무어니 하면서 말의 수효를 제한하라는지 알 수 없는 일이외다.

[라] 마을 초입 건너편 산에서 120번 철탑이 힘차게 쇠썩을 밀어 올렸다. 오랜 세월 하늘과 경계 지어 준 산등성이 고운 선에 뻘뻘 부스럼이 슬었다. 전기 고인 구덩이에서 송전탑이 바글바글한 구더기처럼 징그러웠다. 주민들은 송전탑으로부터 도망칠 곳이 없었다.

골안마을은 감밭이었다. 감으로 먹고사는 동네였다. 가을엔 온 동네가 빨간 꽃밭이 됐다.

“전기 흐르고 벌, 나비 안 날면 감꽃 수정도 안 된다 카던데 우에 살겼노.”

철탑 무리가 서식하는 마을에서 김무출은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농사를 지었다. 여름 가뭄에도 물을 잘 댄 논에선 올챙이가 울룩울룩하고 우렁이가 우렁우렁했다. 그의 논과 밭은 송전탑에서 가까이 있었다. 그의 아들이 두 땅을 담보로 농협에 대출을 신청했을 때 감정이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논두렁에서 송전탑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이 축축했다.

“온몸에 심이 엄꼬, 밥맛도 엄꼬, 살기도 싫고. 오래 전에 할배 죽고 소복소복 농사짓는 맛으로 견디며 살았다. 어른들한테 물리받은 농사가 이래 돼 뿌면 우짜겼노. 억울하고 분해서 우에 살겼노.”

‘전기 바늘들’이 불끈 솟아올라 산안개 사이로 머리를 내밀었다. 비가 끊인 운무가 골안마을 뒷산 108번 송전탑을 싸고 활활 타올랐다. 전력 회사와 경찰이 반대 농성장을 평정한 뒤 마을에선 765킬로볼트 송전탑들이 물먹은 콩나물처럼 쑥쑥 자랐다. 109번이 페인트칠을 끝냈을 때 107번은 밑둥부터 줄기를 토크 올렸다. 내리꽃히는 것치고 찌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산을 올려다볼 때마다 주민들의 찢린 마음도 끓는 수증기처럼 피어올랐다.

마을과 마을마다 경찰 버스와 119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며 ‘속도전 공사’를 지원했다. 하늘에선 헬리콥터들이 두두두두 날며 공사 현장으로 자재를 실어 날랐다. 골안마을 주민들이 공사장으로 오르는 길목을 막고 전력 회사 및 경찰과 대치했다.

길은 마을의 눈물과 땀을 알고 있었다. 수십 년 전 주민들이 시멘트를 이고, 지고, 나르며 닦은 길은 오랜 시간 그들의 삶을 잇고, 통하며, 지탱해 왔다. 그 길 위에서 경찰 책임자가 주민들에게 말했다.

“지금 여러분들은 법을 어기고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 집행기관이니 여긴 일반 교통방해죄에 따라.....”

법은 길의 시간을 알지 못했다. 할매, 할배들이 느리게 오르던 좁고 굽은 길 위를 ‘국책 사업’을 태운 준엄한 법이 질주했다. 송전탑 공사장 진입로가 돼 버린 길을 주민들이 울며 막아선 까닭에 법은 무신경했다. 지팡이를 짚고 쪼그려 앉은 여든다섯 살 할매가 소리 질렀다.

“느그 마당에 갖다 꽃아라.”

매일의 대치가 끝나고 법이 일으킨 먼지가 잦아들면 마을에 자리 틀고 앉은 틈이 보였다. 솟은 철탑 아래로 마을과 마을, 이웃과 이웃, 윗집과 아랫집, 형과 아우, 부모와 자식이 찢겼다. 국가가 만든 틈의 양쪽으로 골이 나고 벽이 섰다. 불빛 드문 수평의 땅에 쇠를 심어 불빛 흥청한 수직의 도시는 번쩍일 수 있었다. 골안마을의 눈물을 빨아먹으며 수직은 키가 자라고 덩치가 커졌다.

우리의 전선(電線)은 그들의 전선(戰線)에서 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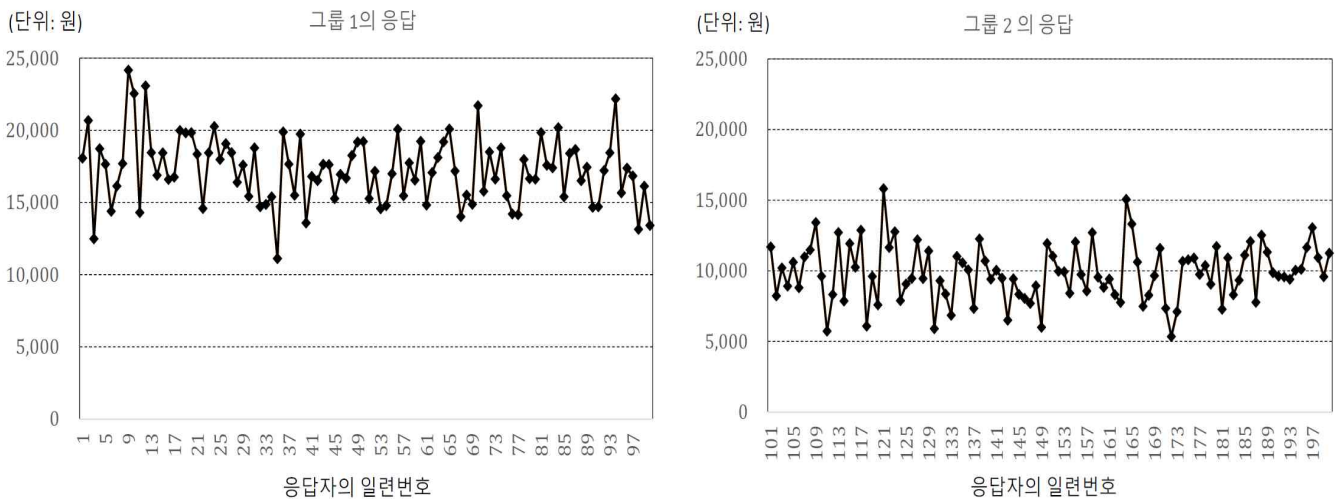
# □ 문제 □

##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 【문제 2】

<사례 1> A 대학교에 입학한 200명의 신입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생들에게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선보인 후 그 품질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다음 예비뽑기로 당첨된 100명의 학생들에게 티셔츠를 나누어 주었다. 티셔츠를 받은 학생들(그룹 1)에게는 “얼마를 받는다면 티셔츠를 포기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하고, 티셔츠를 받지 못한 학생들(그룹 2)에게는 “티셔츠를 얼마에 살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응답을 집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례 2> B시에서 아파트를 판매하고자 하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현재의 시세(時勢)가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그룹 3)와 높은 경우(그룹 4)의 두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각 그룹의 판매자들이 설정한 호가(呼價)를 현재의 시세와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시세를 100이라고 할 때 판매자가 설정한 호가
그룹 3	130
그룹 4	103

\* 시세(時勢)는 일정한 시기에 거래되는 물건의 일반적인 가격을, 호가(呼價)는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사례 1>과 <사례 2>가 시사하는 바를 각각 서술하고 두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밝히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제 3】**

<보기>는 어떤 시의 내용이다. 이 시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 <보기> —————

지붕 새어 잠자리 마른 데 하나 없고  
삼대 같은 빗발은 그칠 줄 모르네.  
난리를 겪은 뒤로 잠조차 부쩍 줄었는데  
기나긴 밤 흠뻑 젖은 채 밤을 어찌 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천만 칸 넓은 집을 지어  
만백성 온통 감싸 환한 얼굴 짓게 하고  
비바람 몰아쳐도 태산처럼 끄떡도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아! 눈앞에 이와 같은 집이 우뚝 솟을 날이 그 언제이라.  
내 집이야 무너지고 이 몸 얼어 죽는다 한들 마다하지 않으련만.